



김백준
굳지마5속

ㅇㅇ적 고민

저의 얼굴에는 마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편평 사마귀'라고 우툴두툴한 좁쌀 같은 것이 하나 둘 늘어나요.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는 안돼요.. 지금은 각종 비타민 + 울무팩 테라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얼굴에 뭘 이렇게 퍼다 부은 적이 없는데...

네, 저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죠. 물론 만성적인 고민(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글은 왜 늘 쓰기 싫은가)들은 반려동물처럼 같이 사는 거구요. 간간이 오는 연애의 위기, 나날이 무거워지는 슬라임(물뱀살) 정도는 뭐, 그 정도면 붙어붙 만한 고민이죠.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의 속회였다면 이때쯤, 자신의 세 번째 고민을 수줍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고민이에요.." 마치 인생 제일의 고민이 아니어서 송구하다는 듯이. 쭈뼛쭈뼛 하면서 말이죠. 슬쩍 속장을 살피면 이미 표정부터 - '꺾꺾아 임마, 다 그런 거지' - 이렇습니다. 속회원들도 너영나영 '신앙적 고민'을 주섬주섬 꺼낸 뒤, 마무리론 속장의 은혜로운 기도. 그제야 비로소 '다 이루었다'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린 구원받았고, 집으로 돌아가죠. 이 은혜 버프는 정확히 월요일 아침이 되면 산산이 흩어져 사라집니다.

다. 똑같은 한 주가 다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착각이었던 셈입니다. 주말마다 맞은 '은혜 뽕'은요.

그런데 말입니다, 배화교회에 온 뒤로 전 이런 종류의 죄책감이 좀 덜했습니다. 애써 신앙적 고민을 끄 집어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배화에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걸까?

저는 지난시기의 저를 되돌아봅니다. 작년 8월부터 장장 7개월에 접어드는 저의 길고 긴 배화인으로서의 자ㅇㅇ와 정초체성..

(buffering 中)
충격적인 건, 돌아보니 저는 배화교회에서 '신앙적 고민'을 사람들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신앙적 고민'이라고 따로 범주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마귀/ 연애/ 뱀살/and 신앙. 이런 식으로 분류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좋아서 가는 교회와 주일 예배, 손으로 쓰는 묵상은 점차 그냥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그냥 제 고민을 나눴고, 그냥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해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배화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잘한 고민들을 말씀에 적용해보며 기도로 묻는 것. 일상적이다 신앙적이다 굳이 고민을 분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지남철의 바늘처럼, 휘어지더라도 위로 뻗는 해바라기처럼. 흔들리면서도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는 사람들이 배화교회 안에 있어서 더불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저에게 누군가 '군포 여행 어땠어?'라고 물으면 저는 그걸 겁니다. "뭘 소리야? 난 그냥 여기 사는 건데." 크리스천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배화에서 함께 살길 바랍니다!

배화교회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주보 제 2019-7호

2019.2.17

주현 후 제 6주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회 중: 여호와께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다함께: 여호와께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오리로다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간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풀은 마르고 / 주 은혜임을 + 왕 되신 주앞에

대표기도 김용석 집사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봉헌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

- 1.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미움 없게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 2.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으소서
- 3.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지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시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 13장 1-13절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 사랑은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 김관석 목사 사랑은...

찬양과 기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축도* 김관석 목사

지난주 통계

인원	81명
헌금	십 일 조: 강영건 김영석 김용석 유재연 김재홍 김선민 서민욱 이아름 무 명 감사헌금: 강영건 김기택 송민천 김미소 홍병진 백수산나 목적헌금: 성입숙 주일헌금: 강정우 김백준 김영석 홍병진 김예현 김은철 김택운 김택현 박소영 서광희 서하랑 송민천 김미소 송윤경 윤서진 배성경 윤영미 이기순 이동근 이은미 이병홍 정우석 조진철 최명성 최영광 최인성 최정용 추세영 추인미 태미선 허경식 함은혜 무 명

교회소식 Church Announcement

Chef's Day 2019.02.17

세상에 이런 애찬은 없었다.
애찬인가 만찬인가!

3.1 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2019.3.3

“모든 이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배화학원 캠퍼스선교
"사랑하는 배화에게"

2019. Spring

- 구역회** 오늘 예배 후(식사 전), 구역회가 있습니다. 2018년 결산과 2019년 예산을 보고, 심의 및 결의하는 시간입니다.
- 쉐프의 날** 오늘 주일 애찬은 남선교회가 준비합니다.
- 3.1절기념예배** <모든 이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도전했던 민족 최대의, 최초의 3.1운동을 다시 조명하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배 후에는 연합속회로 모이겠습니다.
- 남여성교회모임** 선교회별 모임을 3월 마지막 주일(31일)로 연기하겠습니다.
- 캠퍼스 선교** 배화학원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화학원에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 배화칼럼** 칼럼니스트(정기/비정기)를 모집합니다. A4 2/3 분량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 성경 묵상 또는 개인기도 중에 받은 감동, 또는 신앙적 다짐
 - 일상 속에서 경험한 신앙 간증, 또는 단상을 정리
 - 속회모임(지)의 내용을 통한 깨달음, 또는 성찰
- 새가족환영** 최인성, 윤영미 성도님 가정이 배화교회의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 배식 및 정리** 오늘은 남선교회, 다음 주는 51속입니다.